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1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6월 CBSI 전월비 7.8p 상승한 74.1 기록

- 통계적 반등, 공공공사 발주 소폭 회복 영향 전월비 7.8p 상승 -

- 2011년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7.8p 상승한 74.1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3월 0.9p, 4월 4.8p 상승)했다가 지난 5월에는 7.5p 하락했는데, 6월 들어 다시 7.8p 상승해 등락세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임.
- 이로써 CBSI는 지난 4월 수준(73.8)을 회복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65~75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임.
- 6월 CBSI가 상승한 것은 5월 CBSI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과 더불어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공공 공사 발주도 소폭 회복된 때문으로 판단됨(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토목공사물량 지수가 6월에 전월비 5.1p 상승).
- 그러나, CBSI는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에 불과해 건설경기 침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한편, 7월 CBSI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2.7p 상승한 76.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2.7p 상승에 그쳤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7월 CBSI가 6월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흑서기로 접어드는 7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7월 CBSI가 6월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 중소기업 지수가 모두 전월비 상승했는데, 특히 중소기업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결과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지난 2월 중동사태로 인한 해외수주 감소 우려로 14.3p 급락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3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해 107.7을 기록한 후 5월에는 2개월동안 지수 급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30.8p 하락했으나, 6월 들어서는 6.4p 상승하며, 2월 이후 보인 지수 급등락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 일부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 직면 영향으로 4월 지수가 전월비 18.6p 급락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5월 8.3p 상승에 이어 6월에도 7.2p 상승해 73.9를 기록해 3개월만에 70선을 회복함.
-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지난 1/4분기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공공공사 발주가 이후 차츰 회복됨에 따라 4월 19.1p, 5월 1.8p 상승에 이어 6월에도 10.0p 상승하며 63.6을 기록함.
- 중소기업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작년 4월(67.9) 이후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극심한 침체를 보인 공공공사 발주가 조금씩 회복된 것과 더불어 3월 중소기업 지수(32.7)가 27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친 결과임.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 및 자재비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7, 101.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0.1, 78.8을 기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90.8, 84.7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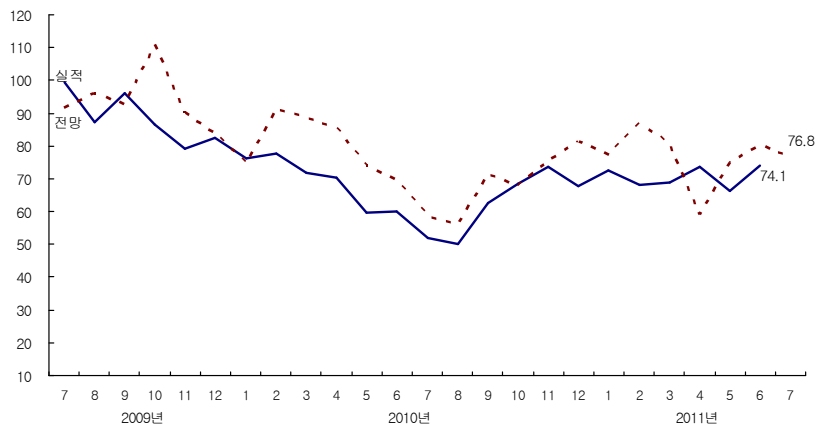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6월 CBSI 전월비 7.8p 상승한 74.1 기록

- 2011년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7.8p 상승한 74.1을 기록함.
- CBSI는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3월 0.9p, 4월 4.8p 상승)했다가 지난 5월에는 7.5p 하락했는데, 6월 들어 다시 7.8p 상승해 등락세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임.
- 이로써 CBSI는 지난 4월 수준(73.8)을 회복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65~75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임.
- 6월 CBSI가 상승한 것은 5월 CBSI 하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과 더불어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공공 공사 발주도 소폭 회복된 때문으로 판단됨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토목공사물량 지수가 6월에 전월비 5.1p 상승).
- 그러나, CBSI는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70선에 불과해 건설경기 침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 중소기업체 지수가 모두 전월비 상승했는데, 특히 중소기업체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결과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지난 2월 증동사태로 인한 해외수주 감소 우려로 14.3p 급락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3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해 107.7을 기록한 후 5월에는 2개월동안 지수 급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30.8p 하락했으나, 6월 들어서는 6.4p 상승하며, 2월 이후 보인 지수 급등락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 일부 중견업체의 유동성 위기 직면 영향으로 4월 지수가 전월비 18.6p 급락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5월 8.3p 상승에 이어 6월에도 7.2p 상승해 73.9를 기록해 3개월만에 70선을 회복함.
-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지난 1/4분기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공공공사 발주가 이후 차츰 회복됨에 따라 4월 19.1p, 5월 1.8p 상승에 이어 6월에도 10.0p 상승하며 63.6을 기록함.
- 중소기업체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함에 따라 작년 4월(67.9) 이후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극심한 침체를 보인 공공공사 발주가 조금씩 회복된 것과 더불어 3월 중소기업체 지수(32.7)가 27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친 결과임.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7월 전망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0.1	62.6	68.5	73.7	67.9	72.4	68.1	69.0	73.8	66.3	74.1	80.4	76.8
규모별	대형	50.0	71.4	91.7	91.7	76.9	92.9	78.6	92.3	107.7	76.9	83.3	92.3	100.0
	중견	59.3	69.2	69.2	80.8	70.4	79.2	73.1	76.9	58.3	66.7	73.9	87.0	77.3
	중소	39.7	44.8	40.4	44.6	54.4	40.7	50.0	32.7	51.8	53.6	63.6	58.9	49.1
지역별	서울	55.0	69.6	84.4	91.2	75.3	90.5	79.1	82.0	87.9	68.6	77.4	84.3	91.9
	지방	42.2	51.7	45.1	46.6	56.7	46.2	51.2	49.7	53.3	62.9	71.2	74.2	56.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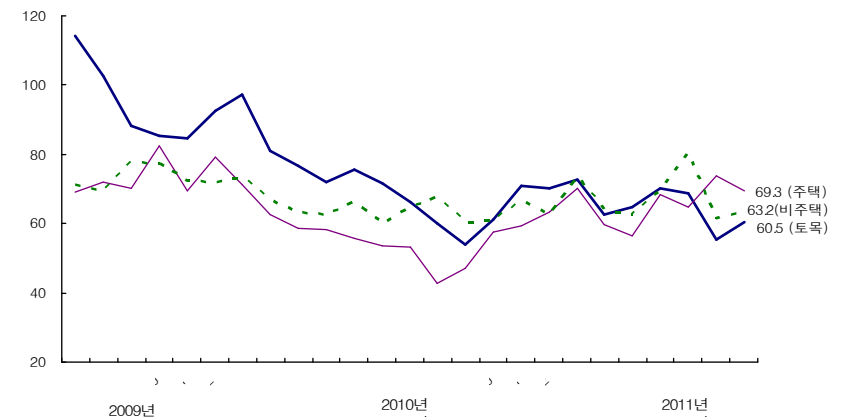
- 한편, 7월 CBSI 전망치는 6월 실적치 대비 2.7p 상승한 76.8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2.7p 상승에 그쳤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이 7월 CBSI가 6월에 비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흑서기로 접어드는 7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7월 CBSI가 6월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8.8p 증가한 77.4를 기록함. 지방업체도 지수가 전월보다 8.3p 상승한 71.2를 기록함.
- 서울업체 지수는 8.8p 증가한 77.4를 기록함.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토목 물량의 증가로 전월보다 10.7p 증가하였음. 비록 물량상황이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나, 지수가 4월(87.9) 수준에 이르지 못함.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8.3p 상승한 71.2를 기록, 지난 2009년 12월 70.2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70선을 회복함. 지방의 경우 전반적으로 토목보다는 주택과 비주택 물량상황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임. 이는 지방 분양경기 회복과 공사 및 공기업 이전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6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6.5p 증가한 69.8기록

- 6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6.5p 증가한 69.8을 기록함. 비록 지수가 전월보단 증가했지만, 여전히 70선 미만으로 부진한 상황임.
 - 공사 물량지수는 지난 3월과 4월에 봄철 공사물량 증가와 분양물량의 증가로 지수가 60선에서 70선으로 회복, 각각 74.4, 73.3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5월에 지수가 10.0p나 하락한 63.3을 기록하였음.
 - 6월에는 5월을 감소를 일부 만회하는데 그친 69.8을 기록함. 지난 5월에 급격히 감소한 비주택 물량과 토목물량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지수가 70선 미만으로 부진한 상황임.
- 공종별로는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감소(-4.7p)하였으나, 비주택 물량지수와 토목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5.1p, 1.6p 상승함. 비록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의 상승이 있었지만, 4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5.1p 상승한 60.5를 기록, 지수가 50선에서

한달만에 다시 60선을 회복함. 정부의 토목 발주물량이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5월 분양물량의 증가로 전월 대비 9.3p 증가한 74.0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6월에는 전월보다 4.7p 감소한 69.3에 그침.
 - 5월에 3만 7천호가 분양되었으며, 6월에도 대략 3만 7천호가 예정되었음. 그러나 6월 분양물량은 2만 5천호에 그침. 결국 6월 분양이 계획보다 부진하여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5월(61.6)과 비슷한 수준인 63.2를 기록함. 사무실 빌딩과 공장 등 민간 부문의 신규공사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임.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22.5p 증가한 91.7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음. 반면, 중견업체와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각각 60.0과 55.4에 그쳐 부진한 모습임.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5월 69.2로 9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6월에는 이보다 22.5p 증가한 91.7을 기록함. 전반적으로 토목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3.5p 증가한 75.0을 기록, 토목물량 증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 주택 물량지수는 83.3을 기록 전월보다 16.7p 감소하였으며, 비주택 물량지수도 전월보다 4.2p 감소한 72.7에 그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총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9.8	91.7	60.0	55.4	74.5	65.1
	전망	80.5	116.7	66.7	53.7	95.4	60.3
토목	실적	60.5	75.0	54.2	50.9	62.6	57.5
	전망	76.7	108.3	65.2	52.7	88.8	60.8
주택	실적	69.3	83.3	79.2	41.7	73.1	66.2
	전망	87.8	116.7	91.3	50.0	100.1	70.9
비주택	실적	63.2	72.7	62.5	52.9	63.7	65.8
	전망	74.5	91.7	78.3	50.0	84.5	62.3

주 : 실적은 2011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7월 예측지수임.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5월보다 6.7p 감소한 60.0을 기록함. 공종별로는 모든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느끼는 물량상황은 5월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함. 토목 물량지수가 54.2로 공종별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주택(62.5), 그리고 주택물량(79.2) 순임.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8p 증가한 55.4를 기록함. 토목(50.9)과 주택 물량지수(41.7)가 각각 전월보다 3.5p, 1.8p 감소하였으나, 비주택 물량지수(52.9)가 전월보다 8.5p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7p 증가한 74.5를 기록하였으며, 지방업체의 물량지수도 전월보다 2.6p 증가한 65.1을 기록함.
- 6월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5월(63.8) 9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으로 전월보다 10.7p 증가한 74.5를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62.6)가 전월 보다 11.5p 증가해 토목물량 지수가 서울업체 물량지수 상승을 주도함.
 - 한편,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1p 증가한 65.1을 기록함. 공종별로 비주택 물량지수(65.8)가 전월보다 11.0p나 증가해 지방업체의 물량지수 개선을 주도함.
- 2011년 7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6월 보다 10.7p 증가한 8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토목 물량지수는 6월 실적치보다 16.2p 증가한 76.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6월보다 11.3p 증가한 7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주택 물량지수는 6월보다 18.5p 증가한 87.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타 공종보다 주택물량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및 자재비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조달 및 자재비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7, 101.1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90.1, 78.8을 기록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90.8, 84.7을 기록해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0.8	109.1	84.0	77.2	92.5	89.3
		전망	91.7	116.7	87.5	67.3	98.6	83.7
	자금조달	실적	84.7	100.0	76.0	76.8	87.9	80.3
		전망	88.0	108.3	79.2	74.1	94.6	79.9
인력	수급	실적	102.7	108.3	104.0	94.7	104.9	99.8
		전망	98.2	100.0	104.2	89.3	102.4	92.0
	인건비	실적	90.1	91.7	108.0	67.9	99.9	74.9
		전망	87.7	91.7	104.2	64.3	97.1	73.6
자재	수급	실적	101.1	108.3	104.0	89.5	108.1	90.8
		전망	101.6	108.3	104.2	90.9	108.2	93.3
	비용	실적	78.8	100.0	76.0	57.1	90.6	60.8
		전망	80.8	100.0	79.2	60.0	95.8	57.9

주 : 실적은 2011년 6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7월 예측지수임.